

광주문화재단 아빠들 위한 프로그램 ‘병태씨와 고래사냥’



파스타로 차린 ‘이모작 인생’ 밥상

“여러분, 마늘을 뿔고 양파를 썰어 볶아 주신 다음 토마토소스를 넣고 조리주세요. 마지막엔 바질을 넣어주세요.”

“바질이 뭐지요?”

“바질은 허브의 일종인데 파스타의 향을 향긋하게 해줘요. 이렇게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잘라 장식해주면 더 예쁘죠.”

“음, 생각도 못했는데 좋은 거 배웠네요.”

4일 오전 롯데마트 상무점 문화센터에 50~60대로 보이는 남성들이 모였다. 각자 앞치마를 두르고 강사가 하는 요리 설명을 유심히 들었다. 생소한 식재료, 처음 보는 조리기구가 신기한 듯 자꾸 강사에게 되물어보고 수첩에 적으며 주의를 기울였다.

광주문화재단이 지난달부터 오는 18일까지 중장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병태씨와 고래사냥’ 참가자들이다. 사업명은 1980년대 인기영화 ‘고래사냥’ 주인공 이름에서 따왔다. 생계 또는 가족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꿈을 포기한 우리 아버지 세대들에게 지금이라도 ‘마음 속 고래(畝)’를 쫓으라는 의미다. 지난해 ‘경자씨와 재봉틀’이 엄마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면 이번은 중장년 가장을 위해 마련됐다. 자녀와 대화할 단절되는 등 긴세대가 되버린 중장년층 남성들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으로 8주차로 나눠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고래를 찾아서’, ‘고래에게 안부 묻기’, ‘고래, 세상에 말을 걸다’ 등을 주제로 역할극 등을 하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소통의 기술을 익혔다. 또 담양 청평 솔로시티에서 1박2일간 머물며 몸이 좋은 악조 케는 법을 배우는 등 휴양과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수업은 ‘병태씨의 식탁’을 주제로 파스타를 만들어보는 요리시간이다. 강사



광주문화재단이 중장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 ‘병태씨와 고래사냥’ 참가자들이 지난 4일 요리실습을 하고 있다.

중장년 남성 대상 ‘병태씨와 고래사냥’ 참가자 16명

역할극으로 소통 기술 익히고 명상·요리 시간 가져

로 나선 심미광 ‘협동조합시민의꿈’ 상임 이사의 지휘 아래 16명의 병태씨들은 그동안 갖고 닦은 요리실력을 유감없이 뽐냈다.

수업은 2인 1조로 구성돼 진행됐다. 그동안 각종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서로 ‘형님 동생’이라 부를만큼 친해진 관계로 손발이 적적 맞는다. 한명이 칼질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은 점심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삶의 연륜이 묻어나왔다. 강사, 참가자, 보

조요원 등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좁은 요리 실습장에 있었지만 서로 부딪치거나 과정이 지체되는 경우가 없었다.

동시에 여러명이 양파를 썰자 매캐한 냄새가 실습장 안을 가득 채웠다. 눈물이 핑 돌지만 누구하나 쉬었다하지는 소리 없이 열심히이다.

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야채를 볶기 시작하자 고소한 냄새가 퍼진다. 점심시간에 가까운 때라 식욕을 자극했다.

야채가 어느 정도 익자 파스타 소스와 케첩을 넣고 섞어준다. 붉은 빛깔과 냄새가 제법 식당에서 파는 것과 비슷했다.

이윽고 이날의 하이라이트 시식 시간이 왔다. 평소엔 잘 안 먹는 음식이지만 이날만큼은 달랐다. 다들 한입씩 크게 먹으며 맛을 음미했다. 각 조마다 비교하며 ‘누구누구네가 더 맛있네’라고 농을 거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그렇게 ‘병태씨의 식탁’은 완성됐다. 최래오(59) 씨는“예전 도 CF처럼 자녀들은 집에서 얼마만 찾는 등 은퇴를 앞두고 은퇴를 한 중년 남성들은 사회와 직장, 가족 내에서 소외감이 든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동안 못해본 문화예술도 접하는 등 인생 이모작을 준비할 계기를 얻었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첼리스트 박문경

피아니스트 김정아

클라리넷 연주자 주민혁

클라리넷 트리오 공연 10일 금호아트홀

실내악의 매력은 다양한 악기의 조합에 있다. 첼로와 클라리넷, 피아노의 결합은 지역에서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구성이다. 첼리스트 박문경, 피아니스트 김정아, 클라리넷 연주자 주민혁이 함께 클라리넷 트리오 공연을 마련했다. 10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연주 레퍼토리는 글린카의 ‘클라리넷과 첼로,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비창’, 로버트 무진스키의 ‘클라리넷과 첼로,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작품 26이다. 마지막 곡은 브람스의 ‘클라리넷과 첼로 피아노를 위한 트리

오 작품 114’로 클라리넷의 아름다운 음색이 잘 나타난 2악장이 매력적이다.

전남대, 독일 쾰른 국립음대에서 수학한 박문경씨는 현재 광주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으로 재직중이며 김정아씨는 이화여대, 오스트리아 빈 시립음악원 등을 거쳐 광주대 음악학과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주민혁씨는 경희대, 프랑스 오베르빌리에 국립음악원에서 수학했으며 현재 광주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으로 맡고 있다.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쇼팽 콩쿠르 우승 ... 조성진 ‘열풍’

앨범 구입 줄서기, 내년 2월 콘서트 50분만에 전석 매진



쇼팽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피아니스트 조성진 열풍이 불고 있다.

경연 실황 앨범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앨범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줄서기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또 내년 2월 예정된 콘서트 역시 일찌감치 매진됐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콩쿠르로 꼽히는 쇼팽 콩쿠르는 마우리치오 폴리니, 마르타 아르헤리치, 크리스티안 짐머만, 윤디 리 등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을 배출해왔다.

6일 세계적 음반사 도이체 그라모폰(DG)은 ‘조성진 2015 쇼팽 콩쿠르 우승 실황 앨범’을 전 세계 동시 발매했다. 앨범에는 조성진이 연주한 14개

작품 가운데 ‘녹턴 op.48-1’, ‘소나타 op.35’와 ‘폴로네이즈 op.53’, ‘24개의 프렐류드 op.28’ 등 4곡을 담았다. ‘폴로네이즈 op.53’은 조성진에게 ‘폴로네이즈’ 최고 연주상’을 안긴 작품이다.

발매 당일인 6일 서울 클래식 음반점 풍월당에는 오전 7시30분부터 구매자들이 찾아와 줄을 서기 시작했으며 9시에는 100여명이 넘어섰다. 클래식 음반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은 이례적인 풍경이었다.

조성진의 이번 앨범은 온라인 음반 사이트에서 예약 판매만으로 유명 가수들의 음반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고 8일 현재도 각종 사이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유니버설 뮤직은 초도 물량을 상향 조정해 5만장을 찍었다. 10년 내에 가장 많은 사례에 속하며 일관적인 클래식 음반의 20배 수준이다.

또 내년 2월 2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쇼팽 콩쿠르 우승자 갈라 콘서트’는 티켓 예매를 시작한 지 50여분 만에 2500석 전석이 매진됐다.

그밖에 지난 7일 KBS 1TV를 통해 방영된 ‘특집 2015 쇼팽 국제 콩쿠르 우승 갈라 콘서트 조성진 스페셜’ 역시 클래식 팬들의 관심을 모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그리운 마음...그대에게 편지를 써요

13일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회장 황선옥) 11월 행사(매월 둘째주 금요일)가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광주시 임동 강숙자오페라라인 연주홀에서 열린다. 이번 달 주제는

‘그대에게 매일 편지를 쓴다’로 김남조 작가의 시에 한지영이 곡을 부친 ‘편지’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는다. 초청성악가는 소프라노 김애령 목포대

교수로 ‘그리운 마음’과 ‘망향’을 들려주며 남부여성합창단(지휘 박호진)이 젊은 작곡가 조성은의 작품 ‘별’과 ‘고독’을 연주한다. 또 회원 황선제, 김선희, 박영선, 문

종민씨가 ‘두고 온 산하’, ‘애모’, ‘코스코스 노래함’, ‘고향의 노래’를 부르며 마산우리가곡부르기 대표 김경선씨가 ‘사랑’을 연주한다.

추억의 노래로 ‘옛 동산에 올라’, ‘이별

의 노래’, ‘달밤’을 다 함께 부르며 꿈나무 연주로 유지수 (수피아여고 1)양이 ‘별’을 들려주며 가을과 어울리는 노래로 ‘낙엽과 과 광주 지역 박원자 시인이 작사한 ‘그대 내 편지를 받거든’을 함께 부른다. 1만 원을 내면 차와 간단한 먹을 거리를 제공한다. cafe.daum.net/gjkrsong. 문의 010-2694-4592, 062-600-713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유)수호부동산중개법인은 법원경매 낙찰대리업무, NPL(부실채권)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질권대출, NPL매입,매각 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전국 최저금리!! 전국 최고 한도!! NPL 잔금 5.2~5.9% 중도상환 無

(유)수호중개법인 물건 광고					
광주지원	2014타경 30504	주택	군산지원	2012타경 7036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0736	상가	남원지원	2015타경 377	공장
순천지원	2014타경 7817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전주지원	2015타경 8853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5타경 1428	공장
목포지원	2014타경 16341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6914	임야
전주지원	2015타경 5779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9078	사무실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수원지원	2015타경 9386	근린시설
정흥지원	2015타경 605	공장	서울동부지원	2015타경 3901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30627	공장	남원지원	2015타경 179	아파트
전주지원	2015타경 3629	공장	의정부지원	2013타경 16018	임야
순천지원	2015타경 2628	공장	광주지원	2015타경 375	의료시설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목포지원	2013타경 727	근린시설
군산지원	2014타경 9739	공장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유한회사 수호 부동산중개법인

사업자등록번호 464-88-00084 / 법인등록번호 200114-0058676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삼화/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 질권대출협약,JB캐피탈 NPL사업협약,담보부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 기업입니다.

부동산 중개 및 부동산 경매, NPL 업무에 관심있거나 참여하실분 선정 모집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 대출 지원 담당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